

ΟΜΙΛΙΑ ΓΙΑ ΑΓΙΑ ΦΩΤΕΙΝΗ ΤΗΝ ΣΑΜΑΡΕΙΤΙΔΑ (Κορεατικά)

사마리아의 성 포티니 (2020년 5월 17일)

이번 주일은 놀라운 선교 활동을 펼친 것으로 유명한 성녀 포티니의 축일입니다. 성녀는 오늘 복음 내용 그대로 야곱의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교도로 규정하여 관계를 끊어버릴 정도로 적대시했습니다. 포티니는 원래 좋지 않은 행실 때문에 소문이 나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부적절하게 처신을 하며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게 살고는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영적 갈증이 있었습니다. 여러 남자를 바꾸어 사는 것으로는 만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내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물을 길으러 우물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고, 교회의 역사에 성 포티니라는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두운 영혼을 밝혀준 이 빛을 즉시 세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서둘러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일으켜서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신중하면서 영리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의 지난 일을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요한 4:29)

결과는 훌륭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마을에서 나와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경에서 읽은 것처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자기의 지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습니다."(요한 4:39)라고 증언하는 여인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겜 마을 사람들은 주님을 더욱 더 잘 알고 싶어서 자신들과 함께 머무르시길 간청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를 동안 마을에 머물며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만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요한 4:42)

우리는 주님께서 나쁜 평판을 받는 여자를 외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녀를 만나 먼저 말을 걸으셨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합니다. 사실 주님은 이 여인이 정식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비윤리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메시아가 자신임을 이 여인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여주시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처신을

얼마나 못나게 했는지에 상관하지 말고, 그들을 주님께로 다가가도록 인도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상관없이, 그의 갈증을 풀어 주시기 위해서, 또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는 물'을 마시라고 주십니다. (요한 4:14 참조).

그리고 근원 되는 '영원한 생명수'를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즉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나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나 다 같이"(에페서 2:17) 제공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도 곧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게 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녀는 또한 다섯 자매와 두 아들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사도들로부터 오순절 날에 세례를 받고 나서, 자신들의 삶을 선교 사업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성 포티니의 다섯 자매와 아들들의 이름도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아나톨리, 포토, 포티스, 빠라스케비 그리고 끼리아끼, 그리고 두 명의 아들 이름은 요시스와 빅토르입니다.

그들 가족은 팔레스타인에서부터 뜨거운 마음으로 열성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시리아, 이집트, 카르타고에서 선교 사업을 계속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후에 최후에는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게 순교 당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순교의 영광스러운 화환을 받았으며, 마침내 성 포티니는 위대한 선교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사도 대등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놀라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례가 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잘것없던 한 여성이 다섯 명의 여동생과 두 명의 아이에게 고향을 떠나서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섯 나라에서 선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들의 피로써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고백과 믿음을 증거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실천하는 행동을 보여준 이 모든 이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코 16:15)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들으면서, 우리는 성 포티니와 그분의 자매들과 아들들이 한 일과 겪은 일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교자에게 영예를 바칩시다. 그리고 순교자를 본받읍시다."라고. 사도 대등자 성 포티니를 본받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 각자의 잠재력과 처해있는 환경에 따라 마음에서 강렬한 열정이 타올라야 하고, 그리스도와 가까이하면서 찾은 구원의 기쁨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 포티니가 한 대로 가족과 이웃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특히 우리 자신이 빛나는 모범이 되어, 이웃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와 연결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도 바울로가 그의 제자 디모테오에게 쓴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대 자신을 조심하고 그대의 가르침의 내용을 잘 살피시오. 이렇게 꾸준히 일을 해 나가면 그대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디모테오 전 4:16) 아멘.